

한국인에서의 바렛 식도(Barrett's esophagus) 유병률에 관한 연구

고려의대 내과학교실 김영선, 김진용, 이상우, 송치욱, 박영태, 현진해

바렛 식도는 식도 하부의 편평상피가 원주상피로 이행성된 것으로 위식도 역류 등 여러 요인이 원인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병태생리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바렛 식도는 서구에서 식도 선암의 발생이 증가되어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식습관 등의 변화로 인한 위식도역류 질환의 증가는 바렛 식도의 유병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까지 한국인에서의 바렛 식도 유병률에 대해서 보고된 바 없어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전향적으로 시행하였다.

연자들은 2000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무작위로 선택한 69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여 바렛 식도의 유병률을 조사하였다. 바렛 식도는 상부소화관 내시경 검사 상 편평상피와 원주상피의 경계부(Z-line)가 위식도접합부 상방으로 1 cm 이상 상승되어있거나 혀 모양의 Z-line 또는 섬 모양으로 독립된 원주세포에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배(goblet) 세포가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1) 연구 대상자 중 25명이 바렛 식도로 진단되었고 유병률은 3.6%이었다.
 - 2) 바렛 식도군과 비 바렛 식도군의 양군간에 역류성 식도염, 흡연, 음주의 빈도는 통계학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3) 식도열공 헤르니아는 바렛 식도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40$).
- 이 연구결과 한국인에서의 바렛 식도 유병률은 3.6%로 나타났고 식도열공 헤르니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인에서의 바렛 식도에 대해 향후 좀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연구와 여러 인자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위장관 증상의 유병률: 아산 지역 표본인구 설문조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주교영*, 최영규, 조영석, 신석준, 방준상, 최필, 한석원, 최규용, 정민식, 선희식, 박두호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위장관 증상의 유병률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충청남도 아산시 보건소와 협조하여 11개 면과 2 개 동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인구에 비례하여 18세 이상 70세 미만의 남녀 2,024명을 무작위로 표본추출하였다.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위장관 증상을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위장관 증상의 기준은 Rome II 기준을 적용하였다. 조사된 위장관 증상의 유병률을 1999년도 국내 전체 인구의 연령, 성별 특이 유병률(age- & sex- specific prevalence rate)로 환산하였다. **결과:** 1) 3회 방문에 부재중이거나, 제외기준에 속한 주민을 제외하고 표본추출주민의 78.4%인 1,417명(남 762명, 평균 44 ± 14 세, 여 655명, 평균 43 ± 15 세)이 설문지를 완료하였다. 이중 남자가 53.8%, 여자가 46.2%, 20대 이하 22.2%, 30대 17.0%, 40대 22.3%, 50대 18.8%, 60대는 19.8%였다. 지역주민의 50.5%에서 한 가지 이상의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였다. 2) 식도 증상으로 인두 종괴감 9명(0.5%, [95% confidence interval(C.I.) 0.1-0.9%]), 흉부작열감(주 1회 이상) 28명(1.5%, [95% C.I. 0.9-2.1]), 위산역류증상(주 1회 이상) 29명(1.7%, [95% C.I. 1.0-2.4])이었다. 3) 소화불량증은 160명(10.6%, [95% C.I. 9.0-12.2])로 소화불량증의 하형은 게양형 소화불량증 45명(28.1%), 운동이상형 소화불량증 112명(70.0%), 비특이형 소화불량증 3명(1.9%)였다. 복부팽만감은 85명(5.7%, [95% C.I. 4.5-6.9])였다. 4) 하부위장관 증상으로 과민성 장증후군은 31명(2.6%, [95% C.I. 1.8-3.4])이었다. 변비는 37명(2.9%, [95% C.I. 2.0-3.8]), 설사는 11명(0.5%, [95% C.I. 0.1-0.9])였다. 변비약 복용은 66명(4.7%, [95% C.I. 3.6-5.8]), 변실금은 23명(1.3%, [95% C.I. 0.7-1.9])였다. **결론:** 지난 1년동안 우리나라 지역사회 주민의 1/2이 위장관 증상을 경험하였으며, 가장 흔한 위장관 증상은 소화불량증으로 10.6%였다.